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4. 19 ~ 2020. 5. 2 제224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음식을 들고 서 있는 인도 어린이(제공: 비제이쿠말)

단팥고 일거리도, 수입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에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시간을 맞고 있다. 이들을 위해 비제이쿠말 목사가 음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이 음식을 나누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돈 없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로 가셨다. 그곳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 그렇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먼저 오셨으니 부르지 않아도 먼저 가는 것이다. 이 생명을 받은 어느 영혼이 또 이렇게 생명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예수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GNPNEWS]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

2만명의 어린이가 음식을 받지 못한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날이다. 지금 인도는 코로나 사태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사회 활동이 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중국,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마저 차단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온라인 집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터인터가 9일 보도했다. 남동부 장시(江西)성의 이신칭의(오직 믿음) 가정교회 설교자는 2월 9일 교회 신자들에게 생방송 앱을 통해 설교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 이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5번 이상 예배처소를 옮긴 바 있다. 같은 날 동부 산둥(山東)성의 한 가정교회 목사 역시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지만 예배를 시작하고 20분도 안 돼 중단당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종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산둥성 중국기독교 양회는 2월 23일, 성(省)의 모든 교회에 즉시 예배 생방송을 중지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2월 28일, 동부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 난후(南湖)구의 통일전선공작부에서는 모든 관영 예배소의 온라인 설교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행했다. 명령에 따르면, 모든 생방송은 일주일 내에 중지해야 하고, 위챗 오디오 방송도 전염병 종식 발표 직후 중지해야 했다. 2018년 9월에 중국 국가종교사무관리국에서 발표한 ‘인터넷상의 종교 정보 관리 조치’에 따르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텍스트, 사진, 음성 혹은 영상의 형태로 기도, 분향, 사제 서품, 경전 읽기, 미사 개최, 예배 및 침례식 등의 종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중계 방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교회뿐 아니라 일반 신자

들의 온라인 활동도 감시당하고 있다.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1월 24일, 중부 허난(河南)성 상추(商丘)시 쉰이양(睢陽)구의 한 삼자교회 신자들은 목사로부터 모든 위챗 그룹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2월, 한 촌(村)의 관리는 지역 종교인들에게 십자가 이미지가 들어간 위챗 계정 프로필 사진을 바꾸라고 강요했다. [GNPNEWS]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한복음 4:23) **기도**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중국이 인터넷을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는 예배임을 선포하며, 중국의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8)

당신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곳을 직면하세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회피하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무덤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이라는 실체는 육신의 살갓보다 더 완전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의 빛을 통해 나의 내면을 건드리실 때, 마

음은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실존을 검증하고, 심령 구석구석을 진단하실 때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자신의 밝은 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복음이 아멘이요, 능력이자 축복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만만큼은 복음도, 십

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의 전능도 여전히 맥을 못 춥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내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은혜는 소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 그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는 대신 감추며 살아갑니다. 약점을 직면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도리어 강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약한 부분을 감춘다고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써보지 못한 영역, 나의 가장 연약한 영역들에 복음을 대입시켜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약점이 강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추실 때 그 방을 열어 보여드리십시오.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꺼내놓기 어려웠던 그곳이 진리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美 MSNBC, 생방송 중 코로나 사태 맞아 목사에게 기도 요청

반기독 성향 미국 언론에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장면 “눈길”



▶ 지난 3월 30일 MSNBC 뉴스 생방송 중 진행자 크레이그 멜빈(좌)과 T.D.제이크스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출처: 유튜브 채널 MSNBC 영상 캡처)

미국 주류 언론 대부분 좌익 성향을 보이며 반기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최근 MSNBC가 뉴스 생방송 중 코로나 사태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대형교회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실제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미국 사회를 진단하는 TV넥스트는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신학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주류 언론의 방송에서 기도는)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

던 놀라운 일”이라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0일, MSNBC 뉴스 진행자인 크레이그 멜빈이 달라스의 대형교회인 포터스하우스교회의 T.D. 제이크스 목사에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멜빈은 “지금 이것은 생방송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

일인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한 30초 정도 기도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적인 재난을 다루기에 지금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과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긴급 구조대원들과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삶이 혼란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진보좌파매체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GNPNEWS]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 성경 판매량도 급증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최근 몇 주 동안 성경책 판매가 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캐롤 스트립의 기독교 출판사 틴데일하우스는 지난 3월 성경 판매량이 2019년 동 기간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틴데일하우스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라이프어플리케이션 스테디성경’의 판매량은 44%, ‘이머스 바이블’의 판매량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틴데일하우스측은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난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의 위로와 확실성을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때 성경 판매량이 증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2000년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 달에도 틴데일 성경의 판매는 57% 증가했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 구글

에서 검색어로 ‘기도’도 크게 증가했다. 코펜하겐대학교 조교수인 자넷 사인딩 벤첸 박사는 75개국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글에서 ‘기도’를 검색하는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첸 박사는 “3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검색은 지난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도에 대한 검색이 집중되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라마단 기간에 비해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GNPNEWS]

올 연말까지 낙태관련법 개정해야... 낙태 막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의 법 개정 시한(2020년 말)을 앞두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올 연말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간주하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법이 등장할 때까지 한 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즉, 낙태가 허용돼 태아 살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해당 판결

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많은 태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반대론자들이)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고 말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4~4.8)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전미복음주의협회, 성금요일 기도와 금식의 날로 동참 호소

전미복음주의협회(NAE)가 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발생했지만, 이 같은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 당신께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며, 4월 10일 성금요일을 기도와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간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국의 교회와 증인들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지리아, 무슬림의 테러로 기독교인 울들어 400여 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4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무슬림 테러범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의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자유와 법치배를 위한 국제협회’는 “2020년 들어 나이지리아에서 지하드주의자인 풀라니 테러범들에게 모두 41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무슬림들에게 순교당한 나이지리아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순종으로 나이지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 기름 없어 출근 못하는 병원 의료진 62%

베네수엘라의 연료난이 심화하면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의료진의 62%가 휘발유 부족으로 병원 출근이 힘든 상황이라고 4일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이 보도했다. 의료인들의 84%는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었고, 66%는 주유소에서 8~20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한국 국가부채 1743조, 역대 최대... 53조 또 긴급 지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43조 원을 기록했음에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과 내수 부양 방안 등 총 53조 원이 넘는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아 나라빚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나라 지도부에게 코로나 사태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미 한계와 무능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앞드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베푸시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4월 20일 ~ 5월 2일

- 4월 20일 ~ 4월 25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4.20~25(10~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4.20~24(19~21시) ▶전북 완주 / 상관교회(김**)010-4743-9397, 4.21(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21,23~2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24(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4.24(11~24시) ▶경남 김해 / 최은석,김정금가정(김**)010-9922-7123, 4.24~25(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4.24~25(13~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외 7교회 진행중.

- 4월 27일 ~ 5월 2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4.27,29~5.2(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27~5.1(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28,5.1(10~13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5.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1(10시)~2(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5.1(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5.1(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5.1(12시)~2(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코로나 특집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두라

4월 중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4500명이 넘는다. 특히 무증상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 이에 기독교 칼럼니스트 짐 데니슨 박사는 데니슨 포럼의 기고문을 통해 미지의 공포에 직면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소개했다. <편집자>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확진자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런 경우를 최대 25% 정도로 보고 있다.”며 “무증상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무증상자들로 인해 감염이 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진자들 또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48시간 동안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또한 무증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보다 더 큰 두려움”

역사적으로 유사했던 경험을 살펴보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18년에 일어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이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이 넘으며 미국 내 사망자 수도 67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팬데믹이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질병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전염병이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 사망자들은 훨씬 더 참혹하고 빠르게 사망했다. 마치 배 앞에 놓인 파도처럼 1918년을 뒤덮은 두려움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컸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밀어붙였고 정부와 언론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었다. 미지의 짐승이 정글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공포는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육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난다. 공포영화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더러 안전한 피난처도 찾을 수 없는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하지만 모든 공포영화에서 공포를 일으키는 귀신이 일단 등장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공포심은 줄어들게 된다. 물론 두려움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지의 귀신이 만들어 낸 공포는 사라지게 된다.

외국인 혐오증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된다. 특히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을 쇠약하게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내 인

생을 통틀어 현재 가장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끔찍했던 9·11 테러도 미국인 일부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 대공황 또한 우리를 육체적으로 위협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주된 원인은 그것이 미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죽게 될까? 아니면 내가 죽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잘못된 대답은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며 현실도피를 택하게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라”

기독교 작가 프레드릭 부크너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종교는 종종 도피주의로 비난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도피주의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악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도피주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하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신성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타인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짓말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얘기한다. 또한 죽음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행동



▶ 1918년, 프랑스 내 미 육군병원에서 스페인 독감에 걸린 원정군 희생자(출처: denisonforum.org 캡처)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교를 통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도피주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부크너는 “포로노 노예에게 해방이 필요한 것처럼, 현실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모든 열망이 도피주의로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31~32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는 “죄가 우리를 속박할 때,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라. 우리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좁은 벽에 둘러싸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 또한 우리들 자신의 더러운 본능, 거짓됨, 속임수 같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라. 책임져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유를 누리라. 현실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부크너

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하여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풍경 속으로 들어갈 때”라고 덧붙였다.

한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살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잘 모르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이 알아야 할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당신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위에 알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전도자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근에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을 위해 마음을 열어두라.”고 말했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알바니아, 코로나 비상에도 병상이 인구 1000명당 1개도 안돼

지난 3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유럽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이 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달도 못되어 현재 이탈리아를 비

롯해 스페인과 프랑스,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지리적으로 발칸서부의 작은 국가로 이탈리아를 마

주 보고 있으며, 다수의 서유럽 국가에서 디아스포라 알바니아인들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수입이 알바니아 국가 재정수입(GDP)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 왔다. 특별히 이탈리아에 많은 알바니아계 노동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여느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12개인 한국에 비하면 현재 알바니아의 의료 병상은 1보다 적은 소수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국가보다 열악한 의료 체계는 사전 검사는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

및 확진이 되어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곳보다 상황이 좋은 이웃 국가들이 결국 생존 가능한 사람들부터 선별하여 치료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기도 한다.

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물자가 이곳 역시 부족하다. 알바니아 정부는 최선의 치료는 곧 초기 바이러스의 근본적 확산 차단이라는 특단의 정책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를 강도 높게 규제하며 그 확산을 막고 있다. 학교 휴교령은 물론이고 종교 집회 및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조차 정부의 허가증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을 했다. 또한 육

로 및 해상과 항공을 통한 해외에서의 민간인의 입·출입조차 폐쇄해 알바니아 스스로 고립의 봉쇄를 하고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시민들이 받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차후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현지 선교사들 역시 안전에 주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고 유럽 EU국가의 입국 폐쇄, 알바니아 공항의 전면 운행 중단으로 출국도 입국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알바니아 모든 교회의 예배가 중단 됐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조속히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GNPNEWS]

주준성 선교사



▶ 알바니아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다.(출처: 360grade.al 캡처)

선교 통신

국경을 넘은 마스크가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

이 글은 마스크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진행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한과 중국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사업차 알게 된 이후 가끔 연락하고 있는 현지인 두 자매가 생각났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연락을 해보니 역시나 두 자매 모두 지난 구정연휴부터 집밖을 못나간 상태로 마스크 없이 지내고 있었다. 전화기를 타고 두려움이 전해졌다. 한국에서 아직은 대량구매가 가능한 때이기에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렵사리 아내와 딸과 함께 135장을 구매했다. 45장씩 각각 3곳의 현지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이 조급했다. 중국의 세관이 어떤지 잘 알기에 하루 빨

리 보내서 친구들이 착용하기 바라며 배송사를 알아봤다. EMS는 발송불가 상태였다. 그러나 다행히 홍콩업체가 아직 중국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송을 의뢰했다. 배송비가 마스크 가격의 세 배였지만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 그렇게 마스크는 한국에서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다.

이 두 자매는 의료 수입유통을 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을 1년에 서너 번 오가며 알게 된 자매들이었다. 두 자매 모두 중국 본사에서 한국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루오라는 자매는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3년간 담장을 해오다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자매와 현재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 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수임이라는

자매가 우리 회사의 담당자가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자매 또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자매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복음을 나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지난 시간 동안 중국에 갈 때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였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취업한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었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었고, 그 문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아무리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도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먼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루오 자매가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매에게 약속했던 한국에 오면 '우리가 가이드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자매는 부담스럽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자매와 함께 제주도를 투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014년에 루오 자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자매의 가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셨는지 그 섬김을 갚을 기



▶ 건물 앞에서 예배 드리는 중국 교인들(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복음기도신문)

회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자매에게 전달했다. 자매는 받을 수 없다 말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루의 만남은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었고 저녁 늦게 호텔 앞에 배려다 주며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에 자매가 우리에게 물었다.

“정말 궁금해요. 제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지...” 그 질문에는 준비된 말이 있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여기로 달려왔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기쁨으로 자매에게 전하고 싶어, 이곳에 한걸음에 달려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너무나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열 수 없을 것 같은 자매의 마음 한

자락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셨군요. 당신들이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지금까지 보내준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네요.” 자매는 우리 앞에서 한참을 울며 서 있었다. 자매를 안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부어지며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했다.

자매가 아직까지 교회에 나간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주님의 때가 되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더욱 믿으며 아내와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GNPNEWS]

조상국



▶ 4월 1일 중국 우한 시장의 모습.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분리대를 넘어 물건을 사고 있다.(출처: 유튜브 채널 SCMP 영상 캡처)

선교 통신

로HING야족 크리스천, 같은 난민 처지의 로HING야족 무슬림에게도 박해받아

로HING야족은 미얀마 라킨주에 사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미얀마에서 무슬림들은 시민권이 없고 지속되는 박해 때문에 국외로 떠난다. 2013년, UN은 로HING야족이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미얀마는 1982년 제정된 법에서 로HING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HING야족 대신 방글라데시 불법이민자들이라고 부르거나 ‘벵갈인들’이라고 불렀다.

게다가 2016년 10월, 무슬림이 국경초소를 공격하여 9명의 경비병을 죽인 사건으로 정부가 무슬림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미얀마 군은 로HING야족에 대해 ‘인종 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자행했다. 로HING야족은 대량 학살을 피해 육로 또는 바다를 통해 이웃 국가들로 탈출했다. 이들에게는 법적인 정당한 명칭도, 고



▶ 로HING야족 난민 캠프(출처: fidh.org 캡처)

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없다. 2016년 초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로HING야족이 살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7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로 갔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110만 명의 로HING야족 무슬림들이 있다.

이 가운데는 작은 교회도 있다. 이들은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같은 로HING야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국인 미얀마에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한다. 이 로HING야족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

다. 특히 지난 1월, 로HING야족 무슬림 테러리스트 단체가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성도들을 공격해서, 25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 갔다. 공격자들은 날카로운 무기로 크리스천 가족들의 텐트를 찢고, 내부의 물품들을 약탈해 갔으며, 교회 지도자와 자녀까지 납치해 갔다. 이 무슬림 단체는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IS) 같은 외국 이슬람단체 소속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한 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로HING야족들은 시민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난 1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 “로HING야족 집단학살과 학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미얀마에 국제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며 4개월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로HING야족 무슬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로HING야족 내의 소수 크리스천들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1월 말, 유니세프(UNICEF)와 협력하여 로HING야족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정규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이 가운데서 로HING야족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로HING야족 난민 성도들을 위한 30일 기도를 제작해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GNPNEWS]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해주셨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복음을 만난 후 50대 중반에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교육선교사로 섬기겠다고 지원했다.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은 백여 명에 이르는 공동체의 주방을 섬기는 것이었다. 장로 차종석(이하 차)은 교육선교사로 호칭이 바뀌었다. 그가 겪었던 좌충우돌 이야기를 울고 웃으며 듣고 감격하기도 했다. 햇살이 반짝이는 어느 날 오후, 아내 오영미 선교사와 함께 만났다.



주님만 따르는 차종석, 오영미 선교사 부부

- 어떻게 교육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셨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 말문을 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음을 만난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차종석(이하 차): “겉모양은 장로니까 교회에서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먼저 술선수범해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술을 좋아해서 어려움만 닥치면 가깝게 지내는 안수집사 형님하고 안 보이는 데로 가서 밤새워 술을 먹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장로고 뭐고 떠나자.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또 가깝게 지내던 성도들도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나는 울고 나가는 분은 그릇되다고 생각했죠. 힘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접고 안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 신앙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셨군요.

“그런데 주님이 한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당시에 부교역자를 뽑고 있었는데 선교사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복음의 삶을 누리게 된 과정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눠주셨어요. 설교하고 나오는 목사님에게 아내와 같이 찾아가서 교제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복음학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 먼저 주님이 복음으로 초대해주신 거네요?

차: “일주일간 진행되는 과정인데, 첫날부터 쏟아지는 복음을 들으며,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말씀이 믿어지면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첫날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이런 나를 포기치 않

으시고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신앙훈련을 찾았어요. 선교관 학교가 있었어요. 출근을 해야 하니 토요일 훈련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훈련장소는 전북 전주였어요. 집은 세종이었는데 주말마다 다닐 형편은 못되었어요. 빛 보증에, 매달 월급이 차압됐고, 아내는 옷가게로 간신히 아이들 등록금을 대고 있었어요. 근데 형편을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담대한 마음이 들면서 전주로 매주 훈련에 참여하러 갔어요.”

-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군요.

차: “아내는 미쳤다고 했어요. 매주 기름 값이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할거냐면서 어려워했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기다려지니까 멀고 피곤한 것도 상관 없었어요. 아내의 얘기도 안 들리고 복음 앞에 달려가는 게 행복했어요. 아내에게도 복음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 그때 오 선교사님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영미(이하 오): “그동안 살아오던 남편을 아니까 이번에도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뭐 하나에 꽃혀서 거창하게 시작하고 나서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증서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고 실패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못했어요. 자기는 이제야 복음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미웠어요. 사실

은 제가 먼저 복음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선뜻 내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아들과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은 저도 간절했지만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군요. 그래도 마음 안에선 목마름이 있으니 여러 과정 끝에 복음학교에 가게 됐어요. 복음을 들을 때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님 앞에 앞드러지는 시간이었죠. 내가 죽어야 사는 진리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복음의 진리에 감격하다

- 그렇게 두 분 모두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시게 됐군요.

차: “아내가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저는 6개월 합숙으로 훈련하는 복음사관학교 준비를 했어요. 직장을 정리해야 됐어요. 그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 대학을 가면 장기휴가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고 여러 방법을 다 알아봐도 장기휴가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직장을 내려놔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난리가 났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동안 사업이 망해서 5년 동안 법원으로 월급이 다 들어가고, 아내가 옷가게를 하면서 아이들 대학졸업을 시켰고, 이제 빛이 청산되고 살 만할 때가 되서 누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시 37:5)’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만 하면 다투게 되니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무렵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 어떤 일이었나요?

차: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식사하자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겼구나 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보니 아들 친구도 같이 나와 있었어요. 아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7개월 만에 7000만원 빚을 졌다고 했어요.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친구도 신용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안 보였어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같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선 그 자리를 떠났어요.”

-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차: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작은 아들이 매일 게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PC방에서 끝내내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주님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으로 받자고 했어요. 여기서 더 미루면 불순종이니까 내가 직장을 정리하겠다고요. 하지만 직장에서 제가 그만두는 걸 말렸어요. 직장은 제 안전한 터였어요. 연봉도 좋고, 퇴직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퇴직금을 받아 아들의 빚을 청산했어요. 그렇게 갚았는데도 빛이 더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 헤브론원형학교 주방에서 섬기는 차종석 선교사(©복음기도신문)

- 어려운 걸음을 떼셨네요.

퇴직금 조기 정산해 아들 부채 갚아

차: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 정확한지 묻고 싶었어요. 이 길을 가려면 이 빛을 갠주셔야 갈 수 있는데,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빛을 갠달라고, 그러면 이제 묻지 않고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기도했어요. 당시 나라에서 보상받을 토지가 있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었어요. ‘이제 내 뜻과 내 계획, 모든 것 던지겠습니다. 어디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추천을 받아 온 곳이 기독교인 헤브론원형학교였어요.”

- 그럼 그때 사모님과 함께 오신 건가요?

차: “아니요. 아내는 6개월간 진행되는 복음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합류했어요. 사관학교 훈련을 받는 과정도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오: “남편의 사관학교 수료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수료생 가족에 한해서 사관학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광고를 들었어요. 사실 이 훈련을 미루고 있었죠. 근데 그 광고를 듣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여지를 두고 안하려고 하니깐 주님이 쫓기를 박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차: “밥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 주시는데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원서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아서 지원하게 됐죠.”

오: “남편이 훈련을 받는 동안 주님이 제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이제는 남편을 100% 신뢰할 것을 결단했어요. 이 마음이 변할까봐 아들에게 이야기 기도 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던 순종할 것을 결단했

다고요. 저도 다음 걸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정신을 못차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차: “주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건지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들 옆에 있다고 해서 변할 애도 아니었죠.”

그렇게 차 선교사는 부르심 받은 학교로, 부인은 공동체 훈련을 받으러 입소하게 됐다.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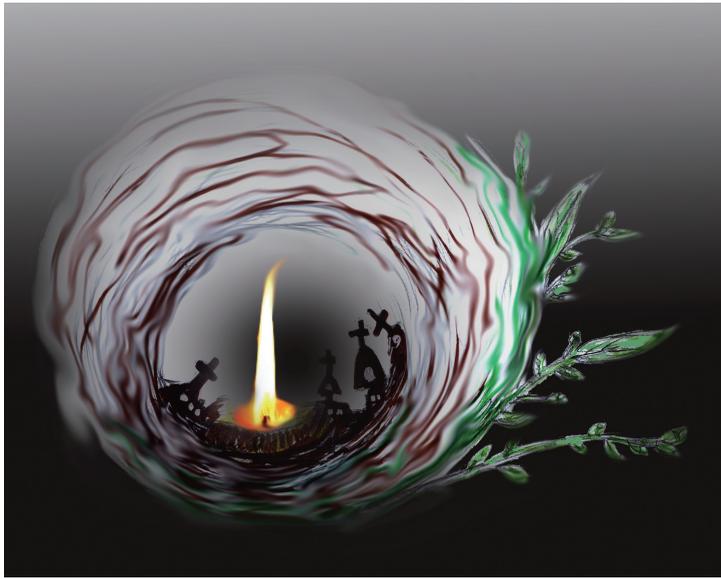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2)

역사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교회

시대가 암울할 때,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는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암울했다. 그러나 다 꺼져가던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의 맥은 이후 왕정 시대로 이어진다. 거의 끊어진 역사의 고리를 이어던 자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 마지막 희망일 것 같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버리는 미친 짓을 했다.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존재했던 장로들도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율법이 규정한 제도(制度)도, 혈통도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생명력은 전혀 없었다.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탄



일러스트=노주나

식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명을 내가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일을 행하고 계셨다.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

마다임에 간신히 경건의 명맥을 이어가던 한 집안에, 그것도 그 집안 식구 중에 제일 불행한 주인공이 된 한 여인이 있었다. '풍성한 은혜'라는 뜻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한나'라는 이름을 가

진 이 여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 고대(古代)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풍성한 은혜'라는 의미와 다른 삶을 산 한나

다른 여인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낳는 아이를,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한나는 낳을 수 없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삼상 1:10). 외롭고, 고통스럽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도 한나는 홀로 가련하게 믿음을 지켰다.

정말 불의한 시대, 그 소망 없던 역사의 한 복판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본래부터 영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결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막을 모두가 등지고 살던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한나가 지니고 있던 신실한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절망의 터위에서 육적인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요, 안돼요, 다 틀렸어요.'라고 말할 때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역사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의 계산과 통념(通念)과 상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2018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도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하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뜯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_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G&P 신간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책 제목이 너무 과격하다 못해 무척 당황스럽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던 선교사의 아픈 고백'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됐다.

어릴 때부터 앓아온 면역 질환으로 살 소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 친구 따라 MT를 간 여수 애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20년간 각종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달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마침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자신이 받은 선교사 이름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요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가면을 벗고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와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했다.

2011년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더 큰 열매는 바로 '나

최요나 지음 | 도서출판 규장 | 239p | 1만2천 원 | 2020

자신의 변화'라고 필자는 고백한다. 전 세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 지역과 나라가 많지만, 주님은 가장 필요한 대상이 바로 '나'민족임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그 은혜의 여정을 이 책에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선교지 망생과 훈련생들은 물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용납'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코로나로 자가 격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간병하는 환자들을 낮에는 씻기지 않는데 오랫동안 씻지 못한 것 같아 씻겨드렸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저도 쫓지에 검사를 받고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주님이 휴가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대구 지역에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 전염될까 염려해서 쉬는 동료들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돌아야 할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간병 일을 한지도 1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기 약 한 번 먹은 적 없을 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눈도 밝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왔었기에, 이번에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일을 빼주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주일 성수를 못할까 봐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후 2주 동안 집에 격리되어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잠깐씩 보던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결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맥락이 이어

지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 낮잠도 안 잤습니다. 말씀을 보았던 2주가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눈이 좋지 않은데 새벽까지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피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구청에서는 2주 동안 과일과 여러 음식들,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30가지가 넘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일하러 갈 때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루에 2번 전화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기겠냐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생각



일러스트=고은선

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힘든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환자들이 내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GNPNEWS]

성순복

나는 30년 후를 기대하며, 오늘 기도를 심습니다

다음세대와 함께 L국으로 기도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수도에서 버스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해 한 주간 느헤미야 52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중반을 달리고 있을 때,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잠깐 누웠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아파왔습니다. 잠깐 누웠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렘 31:15)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위자를 무시하고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린 다음세대들의 영혼의 실상을 마주 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세대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결과는 부모세대가 심은 대로 거둔 죄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웃리치를 마치면서 ‘교회가 기도를 포

기하고 잃어버리면 다음세대와 열방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다음세대 영혼의 실상은 삼십년 전에 내가 심었던 죄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밝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오늘 100년 전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에 심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실상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부인,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GNPNEWS]

모선영

부흥을 위하여

북, 코로나19 의심 환자 증가... 해상 차단으로 구호물자 받 묶여



▶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 (출처: 유튜브 채널 SCMP 캡처)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함경북도 청진에서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사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지난달 말 함경북도 취재 협력자가 청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청진에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에서 죽는 사람이 늘어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코로나19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청진시의 포항구역과 수남구역을 중심으로 2월 들어 기

침과 고열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는 해열제나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의료진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 정부의 함구령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키트가 지방에는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진 시내 아파트에 사는 지인들이 병원에서 결핵이나 기관지염 혹은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자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거점인 나선을 통해 청진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다. 청진에서는 소독약이 부족해 농약 분무기로 공동 화장실 등에 소금물을 살포하는 등 방역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전했다. 청진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제가 많이 부족하고, 방

역관들이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 구호 물자와 농업 지원 활동도 차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상길을 폐쇄한 가운데, 대북 구호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북한으로 출발하지 못한 채 중국 항구에 발이 묶였다고 RFA가 전했다. 북한의 결핵 및 간염 환자 치료 등 대북의료지원 활동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최근 공개한 자체 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물품 운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해상로 역시 막혀 대북 지원물자가 모두 중국 항구에 발이 묶인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북한의 새로운 검역조치에 따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던 선박의 운항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고 알렸다. 컨테이너에는 북한 내 결핵·간염 병원 및 영양원 보수공사 재료, 검사·의료 장비, 비누, 식품 등이 적재돼 있지만, 북중 해상길이 언제 다시 열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대북 구호물자 구매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알렸다. 중국 내 공장들이 거의 2달간의 봉쇄 조치 이후 여전히 가동을 재개하려는 과정에 있어, 지난 12월 주문한 온실, 트랙터, 병원 침대, 검사 물품 등의 생산이 모두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한편, 농업 기술 지원 활동을 돕는 구호 단체인 ‘미국 친우봉사단’(AFSC) 역시 모내기 시기를 앞둔 지난 2월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돼 대북 농업 지원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완전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주님께 바쳐진 삶이다.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모순이 있다.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것,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련한 삶의 신비로운 모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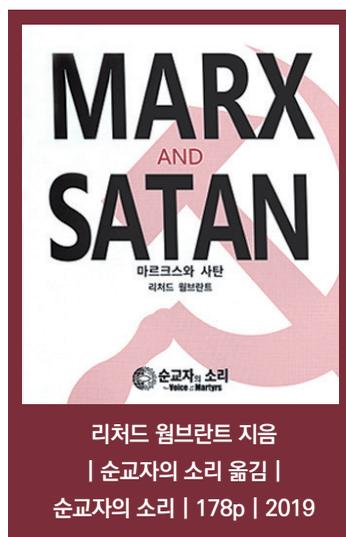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다. 그분을 더욱 닮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다. 우리는 서로 닮을 필요가 없다. 각자가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자살한 것들에 매달리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GN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A.W. 토저, 2015)에서 발췌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리처드 웹브란트 <마르크스와 사탄>

폭력을 개의치 않는 공산주의 사상... 배후에 사탄 숭배



대한 해방 의지는 선한 의도인가 아니면 어떤 모종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또 다른 악의 변형인가!

웹브란트의 '마르크스와 사탄'을 읽으며 세상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그 악의 세력을 향한 분노가 치솟았다. 지금도 마르크스의 유령은 전 세계를 떠돌며 젊은 세대와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변혁가들을 뒤쫓는다.

하나님을 떠난 마르크스, 파괴의 삶을 선택

놀랍게도 마르크스는 독실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다. 그의 초기 서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한 글들도 발견된다. 어떤 계기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 파괴의 삶을 걷게 된다. 정치적 동지였던 엥겔스 또한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던 기독교인이

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던 두 사람은 그 찬양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뒤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모세 헤스라는 스승과 함께 공산주의의 이론과 뼈대를 구축해 나간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악한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통해 인종을 제거하는 것을 옹호하고 폭력을 찬양한다. 선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어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배설물로 성찬식을 하게 하는 모욕은 악에 속한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왜 유독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역할까? 이에 대해 웹브란트는 사상의 배후에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과 제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러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글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결여된 폭력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이 결코 선한 것으로 향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기독교에 영향을 끼쳐 해방신학이라는 말로 많은 영적지도자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었다. 부가 분배되어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이뤄진 삶으로 착각한 목사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기독교 도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신념으로 성도들을 교육시킨다.

그런데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가? 우리는 공산주의의 끝을 보았다. 그들은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자유를 박탈했다. 자본가를 공격하는 그들 자신은 모두 지주계급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

을 살았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사탄적인 것이며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주님은 경고하신다. 이미 여러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그들은 지금도 있다.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단순한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받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면에서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대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할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탄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기울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악을 이기셨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개학, 아이들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아이의 방학이 끝나면 자격증 취득 공부에 집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방학이 끝나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고, 잠시 이러다 말겠지 했던 생각과 다르게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마을 이장님의 잦은 방송과 함께 수시로 긴급 문자가 날라 왔다. 더불어 아이들의 외출이 자제되었고, 학원이 끊겼고, 곧이어 학교 개학마저 연기되었다. 아이들보다 개학을 더 기다렸던 내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언성이 올라가고 힘은 점점 빠져갔다.

그때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급급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난 다음세대를 훈련하는 빛의 열매학교를 다녀온 경험으로 대뜸 부장님께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기도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부장님은 반가워하시

면서 그날 바로 세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보냈다. 더불어 주일학교 아이들 2명까지 함께 왔다.

말씀기도를 하기 위해 거실 책상에 둘러앉아 보니 연령도 다양했다. 어른 2명과 아이들 7명이 둘러앉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내심 주님이 나를 통해 다음세대에 일하시는구나 잔뜩 기대도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세대가 아닌 나를 일깨우고 계셨다.

아이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기도를 즐거워했고 예배 인도와 찬양 인도에도 전심으로 임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매일 그 시간에 거실 책상에 앉았다. 다음 날은 안 오겠지 하면 여전히 아이들은 가방에 성경과 노트를 짊어지고 초인종을 눌렀다.

어느 날 말씀기도 시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만나게 해주셨다.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창 5:28-29)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죄 된 육신의 몸으



로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이들이 우리를 위로하며 안위하리라 하며 '노아'라고 불렀다. 라멕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위로와 안위를 기다렸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의 생명을 쓸어버리는 홍수였던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왜 라멕에게는 그렇게도 기다리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자인가 묵상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 노아의 홍수처럼 코로나로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세상은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경기 침체로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 나 또한 답답해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모순된 내 신앙을 보았다. 어쩌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코로나바

이리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땅히 일어날 환난과 같은 일인데 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졌다. 두렵고 떨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두려움 없는 아이들의 기도, 세상 끝의 환난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신호인 것을 깨닫는다. 나는 어떤 존재로 무엇을 기다리는 자인지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 실제 된 시간이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부된 교회이다. 이 현실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는 믿음을 지닌 자다. 마라나타! [GNPNEWS]

정구림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3. 27 ~ 4. 8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김사회 김수미 김애심 김일범 노은옥 문미현 박승은 백미옥 안민자 안수경 유국주 은종숙 이남준 이삼연 이순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정영배 정윤희 조형광 최근희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목자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쉐 양덕원감리교회 오보평강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